

평생교육관점에서의 현대사회 예술교육의 역할: 민화작가 예술교육소 참여자의 예술경험과 삶의 변화측면을 중심으로

이은경* · 현은령**(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전통예술인 '민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오늘날 예술이 가져야 할 역할과 교육적 시사점을 평생 교육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6개월에서 2년 6개월간 민화교육에 참여한 대상들에게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Ground)로, 지속적으로 수정과 가설을 제시하며 이론을 도출하는 분석적 귀납(Analytic Induction)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현대사회 예술교육의 역할을 '긍정적인 학습경험, 배우의 욕구, 내면적 성장, 자신의 가치 상승, 타인과의 소통의 도구, 학습공간에 대한 소속감, 의미를 발전시키려는 충동' 등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설 예술교육소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사설 예술교육소는 개개인에 맞춘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구성해 참여자의 욕구에 맞춰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 일회성의 문화 전수의 기회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예술교육이 현대인들에게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만족을 이끌어 내 예술교육이 가지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좋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예술교육, 예술경험, 평생교육, 민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우리는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과학과 의학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Sinclair & Laplante, 2019). 하지만 장수하는 삶은 그저 오랫동안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을 떠나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대중의 물음과 요구는 매슬로(Maslow, 1943)의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과

* 제1저자, 일반대학원 러닝사이언스학과 인지정보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nabi84@hanyang.ac.kr

** 교신저자, 부교수,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 일반대학원 러닝사이언스학과 인지디자인전공pariosa@hanyang.ac.kr

그 맥을 같이 하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육체적 건강을 위한 ‘웰빙’의 시대를 넘어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중시하는 ‘힐링’의 시대를 살기 위한 방법적 도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예술이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예술에 대한 개념과 관점에서 볼 때 즐거움을 주는 예술(Arts d'agrément)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예술의 역할 중 하나는 대중이나 관객을 교육하여 도덕적이고, 지성적으로 성장시키며 대중의 정신적 휴식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미술비평가인 디드로(Denis Diderot)는 ‘예술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멈추고 보편적으로 제시되어 대중들에게 인정받아야 그 가치가 생기며 확실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Morana & Oudin, 2009). 이는 당시 소수의 전유물이라 볼 수 있었던 예술의 독점을 비판하고 예술에 대한 정의를 진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몽적인 입장에서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예술교육의 역할을 한국전통예술인 ‘민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통 민화는 ‘민중의 회화’라는 말뜻처럼 예로부터 소수의 계층만이 누리던 예술의 틀에서 벗어나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윤열수,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주부 등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 민화작가의 사설 예술교육소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 그들의 예술경험과 삶의 변화 측면을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하는 것은 참여자가 의미 있는 예술교육 활동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은경, 현은령, 2021).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사회에 위치한 한국전통 민화 작가의 예술교육소 참여자의 예술 경험과 삶의 변화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관점에서 현대사회 예술교육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민화교육 참여자들의 경험과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 민화교육 참여자의 배경, 목적, 동기는 어떠한가?
 - 여러 가지 예술 교육 중 민화교육에 대한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 민화교육 참여 이후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어떠한가?
 - 민화교육 참여 이후 자신의 내면적 변화는 어떠한가?
- 둘째, 예술교육이 미래의 자신의 삶에 주는 변화와 기대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탐색

연구가 이루어진 예술 활동의 환경적 공간인 민화작가의 예술교육소를 평생학습에 대한 의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방법적 매체가 되는 민화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의미를 확인한다.

1) 예술 작가 개인교육소에서의 평생학습

평생학습개념에서의 연구는 그간 사회복지학과, 교육학 등에서 많이 다루어 왔다(김상미, 2019; 변애경, 윤창국 2017). 황명화(2020)는 성인전기 여성 학습자의 발달과업 인식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양상에 관해 연구했다. 통계분석을 통해 연령대, 가족을 이룬 형태, 직업, 평생학습의 동기, 만족도 등의 양상이 성인여성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했다.

평생교육은 대학교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활발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활동 공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석진과 이승진(2015)의 ‘성인 평생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메타분석’의 연구 등에서는 평생학습을 받는 공간, 즉 교육환경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국지하, 윤용한, 박봉주, 김원태,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의 예술 교육관련 연구(박소연, 홍성만, 임채홍, 2011; 양은아, 2019; 이경진, 최나영, 강주희, 2019; 이미정, 2014) 비해 사설 학습기관에 대한 학술적 논문은 부족하기 때문에(장옥주, 김현숙, 2010) 지역사회 예술연구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개설된 평생학습기관이 위치에 따른 접근성이나 교육 환경적 선호도가 성인교육 학습에 있어 선택 동기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설 학습기관이 위치한 인근의 지역민들에게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민화의 교육적 의미

본 연구에서 교육의 매개로 활용하는 민화는 우리나라의 전통회화방식 중 하나이며, 조선시대 전·후로 크게 번성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민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그림들은 서민과 궁궐의 그림이 혼재되어 있다(김용권, 2012). 민화는 ‘본(本)’이 있는 그림으로 보편적인 민화 실기 교육법은 전공자는 물론이고 그림 그리기를 처음 접하는 대중들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민화 실기 교육법 역시 전통적인 민화의 ‘본’을 따라 그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화의 특징인 그림에 나타난 요소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뜻의 이해를 돕고자 ‘민화의 이론적 배경, 역사’ 등 이론수업과 함께 진행된다. 이수경, 박부숙(2014)과 정소연, 성소영(2012)은 민화감상법을 유아교육에서 예술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표현력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이해도가 증진되었다. 민화에 그려진 요소들의 상징적 의미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여졌고 교육적 효과도 키워진 것이다. 고숙자(2002)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화에 대해 이해와 상징적 의미를 교육하고 창작적인 결과물을 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민화를 교육적인 의미에서 고찰해볼 때,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으나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 민화의 역사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연희, 2017; 김영수, 2015; 김용권, 2012; 윤열수, 2000). 이는 대중들에 대한 민화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민화가 가지는 교육적 용이성, 친근함과 대중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예술교육으로서의 우리나라 전통민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전통 민화 작가의 사설 예술교육소의 민화교육 수강생들이다. 연구의 일관성과 함께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연구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 1회 3시간 이상 최소 6개월 동안, 총 48시간 이상 장기적인 민화교육 참여자를 선정기준으로 했다.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선별된 연구 대상의 연령에 대해 기준을 두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인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은 모두 30-40대 성인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의 저변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되었고(평생교육법, 2008; 차갑부, 2014),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들의 생애주기적인 발달과업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것을 본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다. 연구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선정

NO.	대상	성별	교육참여기간	나이	직업
1	교육 참여자 w_m	여	2년 6개월	30대	회사원
2	교육 참여자 w_e	여	2년 1개월	30대	미술강사
3	교육 참여자 w_h	여	1년 7개월	30대	주부
4	교육 참여자 w_l	여	1년 6개월	40대	사업가
5	교육 참여자 m_k	남	1년 4개월	30대	회사원
6	교육 참여자 w_p	여	1년 2개월	40대	공무원
7	교육 참여자 w_j	여	1년	30대	학교교사
8	교육 참여자 w_w	여	1년	40대	프리랜서
9	교육 참여자 w_b	여	1년	30대	자영업

2.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대중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을 각종 문헌과 미디어 등의 매체에서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고 흐름을 관찰했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평생학습과 민화의 교육적 의미연구가 부족함을 발견했다. 실질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전통 민화작가의 사설 예술교육소의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세한 연구수행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3. 데이터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교육 현장에 직접 들어가 교육 참여자들과 비교적 긴 시간동안 상호 소통하는 작용을 하며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김영천, 2012).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는 교육 참여자의 연구 참가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윤리(Research ethics)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발적 동의를 받았다. 참가 동의서에는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및 설명과 연구과정을 함께 기술하였다. 면담 내용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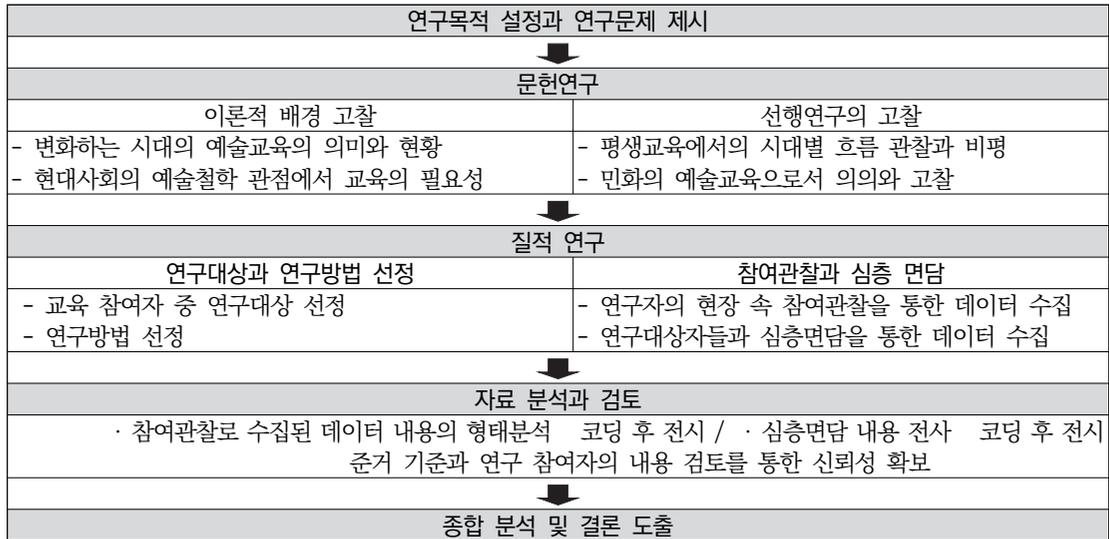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관찰을 통한 현장일지, 사진, 그림 및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연구되었다.

1)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개개인마다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주 1회 3시간이상의 교육 참여 시간동안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문답형식의 심층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교육 참여자와 본 연구자가 장기간동안 유대감(Rapport)형성이 되어있어 보다 솔직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방법으로 선택했다. 심층면담 방법은 대면면담과 전화 면담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진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해 일부 연구대상의 대면이 어려웠다. 대면면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교육 참여자는 전화면담이 함께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정해진 실기 교육 수업시간에 교육소안에서 총 3시간동안 교육받는 중·후에 자유로운 형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 대상에 여성은 w, 남성은 m 참여자의 이니셜 중 하나를 합쳐 구분하도록 코드를 부여했다. 추후 코딩 시 혼동방지를 위해서다. 자세한 면담방법과 일시, 소요시간 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면담방법과 총 소요시간

NO.	교육참여자 대상	일시	심층면담방법	장소	면담 총 소요시간
1	w_m	2020.12.6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2	w_e	2020.12.6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3	w_h	2020.12.3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4	w_l	2020.12.3	전화면담	-	1시간 30분
5	m_k	2020.12.18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6	w_p	2020.12.18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7	w_j	2020.12.3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8	w_w	2021.02.5	전화면담	-	1시간 30분
9	w_b	2021.02.12	대면면담	교육소	약 2시간

질의방법은 반 구조화된 면담방법(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했다. 사전에 연구자가 연구문제 주제에 따라 제작한 ‘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심층면담 가이드’를 통해 몇 가지의 큰 주제별 안에서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면담을 진행, 혹은 후에 면담자의 답변의 뜻이 불명확 하거나 연구에 필요할 시 횡수를 추가하여 진행했다.

(1) 대면면담

대면 면담은 심층연구방법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형태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면면담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간 중 행해졌으며, 실기 수업시간에 진행되었다. 총 3시간으로 실기 수업의 방법이 교육 참여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지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위의 심층면담가이드를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한다. 대화내용은 녹음하여 전사를 통해 코딩하여 분류하고 분석한다.

(2) 전화면담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면담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대면면담과 병행하였다. 전화면담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때에 실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담에 대한 압박감이 대면면담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천, 2010). 전화면담은 대면면담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면담이 소유되므로 깊이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메일 또는 사진을 첨부한 문자로 보내어 질의에 대해 미리 생각할 시간을 하루 이상 충분히 주었다.

2)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관찰방법은 연구자가 교육 참여자의 학습공간으로 들어가 학습자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소규모 집단의 형태를 관찰하기에 적절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한 현장일지, 그림묘사, 교육 참여자와 결과물의 사진 등이 수집되었다. 현장을 관찰하며 ‘민화’를 매개로 한 공통된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이나 패턴을 현상학적인 근거(Grounded Theory)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화교육의 특성 상 같은 그림의 본을 보여주고 동일하게 그리는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 학습자 개개인에 따라 결과물이 색, 그림 요소의 유무 등 형태가 교육 참여자 개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따라서 그 이유를 근거이론의 맥락으로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근거이론은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후속연구들로(Deznin & Linclon, 1994; Charmaz, 2006; Urquhart, 2010) 실증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연구방식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의 행위 및 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예술 교육 경험을 통해 사회와 철학적 의미를 방법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현장일지는 크게 연구자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현장일지’, 현장교실 ‘그림묘사’, 연구 참여자의 작업과정 및 결과물이 담긴 ‘사진’이다. 현장노트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 경험, 생각, 참여자와의 상호 작용 등을 기록한 기록물이다(김영천, 2010).

질적연구에서 현장일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규정은 없다. 현장일지는 연구자가 기록과 반성을 위해 연구과정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해 쓰이며 분석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기록한 현장일지는 1인칭 시점의 현장일지로 실제 기술자인 연구자 본인의 시선에서 연구자가 본 것, 경험한 것, 생각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록했다. 현장일지에는 관찰일시, 관찰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관찰장소, 시간대별 기록과 함께 활동묘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A4크기의 양식의 인쇄물로 만들어 기록했다. 연구자와 교육 참여자 간의 상호 대화 내용과 함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상세히 묘사해 기록하도록 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 일지를 주기적으로 써내려가며 무엇을 써야하는지 쓰지 않아도 되는지 느끼게 된다. 반복적인 현장일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념화와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귀납적 형태의 글쓰기는 데이터 분석의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김영천, 2013).

다음으로, 그림 그리기 관찰 방법은 연구자가 현장의 구조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현장의 물리적, 공간적 구조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Marshall & Rossman, 1989).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일련의 대형 공공교육기관과는 다른 전통 민화작가의 개인 예술교육소이다. 그러므로 현장의 느낌과 교실의 책상이나 의자 배치, 교육 참여자 간의 위치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 묘사를 함께 병행했다. 이와 함께 대면 면담에서도 교육 참여자가 본인의 교육 참여 전과 후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서 활용한 현장일지는 통일성과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모두 같은 크기의 A4 크기 양식의 출력물을 활용했다. 또한 사진은 학습자별로 매 수업시간마다 촬영하였다. 연구대상자가 교육받는 민화 실기교육은 입문, 초급, 중급, 고급과 같은 단계별 커리큘럼에 따라 같은 본(本)을 사용하여 일련의 규칙이 있는 채색방법을 통해 교육된다. 참여자 모두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 하지만 교육 참여자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점에 따라 이를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사진자료를 활용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면담 녹음, 참여관찰 노트, 사진, 그림 묘사 등의 수집된 질적 데이터는 전사 후 복사했다. 참여관찰, 면담내용 분석과 면담 중 실시한 자신에 대한 그림 묘사의 분석은 앞서 연구의 방법에서 말한 질적 자료의 현상학적 근거(Grounded Theory)로 찾고자 했다. 질적 자료 분석의 논리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추론의 원리로 토대로 그 속에 드러나는 일반적인이고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통해 일어난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과 가설을 제시하며 이론을 도출하는 분석원리인 분석적 귀납(Analytic Induction)방법이 사용 됐다(Robinson, 1951; Znaniecki, 1934). 분석적 귀납이란 현상과 가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현상과 가설을 재 정의하는 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사실에 다가서는 추론방법이다(김영천, 2013). 연구에서 녹음, 기록된 자료들을 컴퓨터를 통해 전사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도출해 내어 코드화해 분류했다. 이 과정은 Miles & Huberman(1994)의 3단계 절차를 참고하였다. 자료의 선정과 응축, 범주화, 주제로 세분화하는 ‘자료 감환(Reduction)’,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조직되고 압축된 정보의 조합을 뜻하며 자료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자 시각형태로 표현하는 텍스트, 그래프, 차트 등의 ‘자료의 전시’, 그리고 분석한 현상이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인 ‘결론의 도출’이다. 분석결과에서의 규칙성, 패턴, 설명 가능한 형태 인과적 흐름에 주목한다. 다음(그림 2)은 이런 단계를 연구자가 도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2. Miles & Huberman(1994)의 자료 분석 3단계

본 연구에서는 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위의 참여관찰을 통한 현장일지, 사진, 그림 묘사와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통한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했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Lather(1993)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검토와 평가, 반성적 주관성, 카타르시스 타당도'를 고려해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V. 연구내용

앞선 연구방법을 통해 선정된 연구대상은 주 1회 3시간 이상 최소 6개월 동안 48시간 이상에서 최대 2년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교육을 받은 30-40대 남녀이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참여 관찰하면서 기록한 현장일지, 사진, 그림 묘사 등을 통한 자료 분석과 연구주제에 맞춰 제작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담내용분석 후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참여 관찰과 현장노트 분석

1) 그림 그리기 관찰내용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교실을 묘사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하는바 책상은 일반 학교의 교실 책상보다 약 2-3배 정도 크다. 교육 참여자들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앉게 하였고, 중간 중간에 식물이 식재되어있는 화분을 배치하여 편안한 교실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편안한 심신을 위해 수업 중에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는 교실이라는 학습공간이 자칫하면 딱딱하고 긴장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교육지도자인 연구자가 교육 참여자들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즉, 교육 참여자가 가지는 최선의 학습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의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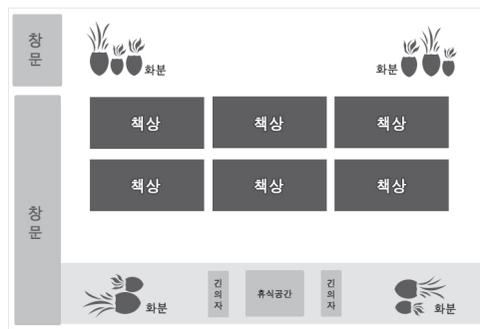


그림 3. 물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현장교실 묘사

다음은 참여관찰일지에서 학습자와 연구자간의 대화를 발췌한 것이다. 교육 참여자 w_p는 교실에 관한 내용이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실 안의 눈의 피로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한 화분에 대한 생각을 교육 도중 말했다.

“숲속에서 그리는 것 같아요 (중략) 마음이 편안해져요” < w_p, 2020.9.25일 현장노트 >

또한 교육 참여자 w_m는 수업을 받는 중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학습에 대해 잔잔한 음악이 자신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말하였다.

“제가 지금 둘째를 갖고 있잖아요.(중략) 여기는 흘러나오는 음악도 좋아서 태교에도 좋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 w_m, 현장노트 2020. 7.5일 >

다음의 <그림 4>는 교실 벽면에 걸린 학습 지도자인 작가의 작품을 강조한 묘사자료이다. 교육 참여자 w_m, w_e, w_h, w_p는 참여관찰 중 교실벽면에 걸린 지도자의 작품에 대해 모두 다음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소에서 행해지는 민화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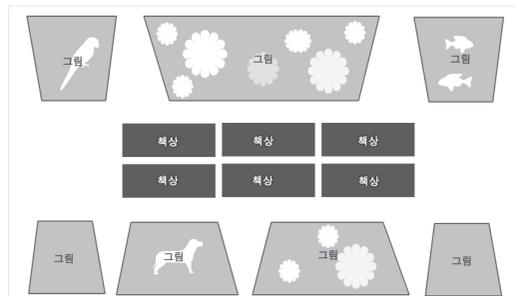


그림 4. 벽면의 그림을 강조한 교실의 물리적 특징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중략) 열심히 해서 저렇게 큰 그림 그리고 싶다.” < w_p, 2020.12.4. 현장노트 >

“많이 배우게 되는 것 되요. 기법 같은걸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후략)”
< w_h, 현장노트 2020.12.4일 현장노트 >

“선생님 그림 보면서 그리는 거 좋아요 (중략) 다음에는 저 그림 그려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게 되요. 뭔가 욕구를 부르는” < w_m, 2020.12.18. 현장노트 >

“선생님, 저 그림은 저도 그리게 되면 거실 한복판에 걸고 싶어요. 아니면 부모님 댁에 걸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 w_e, 2020.12.3. 현장노트 >

앞서 선행연구에서 이승진(2015)의 성인 평생 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메타 분석 연구결과에서 학습 받는 공간, 즉 환경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다른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다시 공간과 환경이 학습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며 그에 따른 근거로 볼 수 있다.

2) 연구대상의 결과물 사진 분석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전통 민화 교육의 실기 지도 방법은 커리큘럼을 통한 하나의 본을 통해 일련의 규칙을 통한 채색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교육대상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지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그림 5>는 같은 교육 기간과 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이 비슷한 두 명의 참여자 작품들이다. 왼쪽의 참여자 w_j는 커리큘럼대로 2장의 그림을 지도자가 요구한대로 빠짐없이 그리고 채색했다. 반면, 참여자 w_p는 2장이 세트인 그림을 한 장으로 형태를 바꾸어 생략하고, 통합하여 그리고 채색하였다. 이후에도 참여자 w_p는 다소 복잡한 도안을 생략하거나 색을 바꾸어 칠하는 등의 변형을 통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참여자 w_p는 나만의 작품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림 5. 연구대상의 결과물 비교사진 - 좌: w_j, 우: w_p

아래 <그림 6>은 참여자 w_m의 결과물로, 왼쪽은 샘플로 제시한 작품사진이며 오른쪽은 w_m가 그린 결과물이다. 고양이가 뒤에 그려진 꽃이 좀 더 많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행동은 교육 시 종종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으로 사료된다. 이전과 이후에도 참여자 w_m는 제시한 도안보다 추가해 그리거나 화려하고 진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 w_m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w_m: 저는 항상 뒤를 더 그려 넣게 돼요.

연구자 : 그러게요, 작품마다 화려하고 진하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w_m :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완성하는 것 보다 제가 만족해야 되니까 < w_m 2020.9.11. 현장노트 >



→꽃을 더 그려넣음

그림 6. (좌) 본(本)작품과 (우)w_p의 작품 비교

위의 교육 참여자들의 결과물 사진 자료와 그들의 이야기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개개인의 개성과 아이디어 및 생각에 따라 창의성이 가미되어 형태가 합쳐지거나 생략되고 혹은 더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창의성은 의미를 발전시키려는 충동에서 시작된다(Anderson & Milbrandt, 2007). 참여자 w_m처럼 나만의 작품을 만족도 있게 완성시키려는 행동이 더해져서 나온 결과물과 참여자 w_p처럼 교육 참여자 개인적 충동과 관심이 미술작품을 완성시키는데 훌륭한 동기가 된 것이다.

2. 심층면담 분석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김영천(2010)의 질적연구방법론의 ‘교육과정 및 가정생활영역 면담가이드’ 질문목록과 함께 Belenkey 등(1988)의 ‘여성인식방법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면담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였다. 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인식과 배경에 대한 질의 후에 삶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질문하고자 했다. 처음 면담한 참여자 m_k는 제시한 면담 가이드 중 ‘삶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어려움’을 느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연구자는 면담이 이뤄지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면담대상 모두에게 질문지를 미리 사진을 첨부한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약 하루 정도 미리 충분히 주고 난 후, 대답의 준비가 되었을 때 면담을 시작하였다. 다음의 <표 3>은 대면 면담 및 전화 면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의 질의 내용을 주제화하여 간략화 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위 큰 주제에 따른 질문을 하고 대답에 따라 심도 있게 더 깊은 세부질문을 주고받았다.

표 3. 심층면담 질의내용

분류 코드	질의 내용
예술교육 참여자의 경험(배경)	예술교육 참여 배경, 동기, 목적
민화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변화	민화교육 참여 전 타 예술경험과 생각 민화교육 선택과 장기간 교육 참여의 이유
예술교육 후 미래 삶에 대한 변화와 기대	교육 후 자신의 가정·사회생활의 변화와 생각 교육 후 가족과 주변인들의 평가와 생각 교육 후 본인 스스로의 평가와 묘사 지속적인 교육 후 미래의 자신에 대한 생각

먼저 예술교육 참여자의 경험과 배경에 대해 질의에서 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교육받는 목적에 대한 면담내용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4>.

표 4. 예술교육 참여자의 참여배경

a. 다른 이를 통한 동기유발	
m_k	민화 전시회를 보고 배우고 싶다고 느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봤어요.
w_l	민화 자체가 예쁘지만 원색적이고,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 좋지는 않았거든요. 편견이랄까 (중략) 선생님 그림을 보고 배워보고 싶었지.
w_w	그림 그리는 지인이 추천해줬어요, 예뻐서 배우고 싶었어요.
w_h	대학 때 한 학기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중략) 더 배우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w_j	대학원에서 (중략) 한국화수업 대한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는 A지역으로 찾아봤어요.
w_m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여러 민화 그림을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b.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인한 동기유발	
w_e	인터넷으로 선생님 그림을 보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w_p	인터넷으로 선생님 그림을 우연히 보았는데 너무 예뻐서 나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w_b	예고 다닐 때 동양화를 접해서 (중략) 태교 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에 알게 됐어요.

위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동기로 예술교육에 참여하였다. 작가나 예술교육참여자 등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 후 느낀 동기유발’과 ‘과거에 경험했던 미술’ 등 민화와 비슷한 예술교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적극적인 예술교육 활동으로 이끌었다. 문화와 예술을 찾는 이들은 아무런 정보나 사전경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흥미 있는 주제를 찾고 정보를 수집한 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를 행동 결정과정의 단계라고 부른다(Kotler & Kotler, 1998). 본 연구의 민화교육소를 찾은 이들 역시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행동결정 단계’를 거쳐 인터넷과 지인의 추천 등의 정보수집 후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 행동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다음은 배움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했다. 대상자들은 모두 30~40대의 성인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주부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민화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에 대해 참여자들은 ① 평생취미로 민화를 선택했다고 했다. 교육소에서 배움을 그만두더라도 집에서 그림 그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② 미술전공자나 미술 강사와 같은 전문가가 자신의 커리어를 더 개발하기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③ 평생취미와 장기적으로 학습 후 전문가가 되고 싶은 목적이 혼용되기도 했다. <표 5>.

표 5. 예술교육 참여 목적

a.평생 취미	
m_k	그냥 나만의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걸 하고 싶었어요.
w_l	평생취미로 좋겠다 싶어서 (중략) 나이 들어서 집에서도 계속 그려보려고
w_w	목적은 취미 갖고 싶어요.
w_b	저는 태교를 목적으로 왔는데, 너무 재밌고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w_j	대학원 졸업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취미도 갖고 (후략)
b.전문가 소망 및 역량 강화	
w_h	제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작가도 되고 싶고 민화 강사도 하고 싶어요.
w_e	작가도 되고 싶고 미술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배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w_p	제 직업 관련해서 이런 그림들을 자주 접하는데 배워보고 싶었어요,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c.취미와 전문가 소망의 혼용	
w_m	잘하게 되면 작가도 되고 싶고 평생취미로 갖고 싶어요.

민화교육 참여 전 타 예술경험 대해 물었을 때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화와 비슷한 회화 예술교육에 대한 길거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경험의 장소는 박물관, 평생학습센터,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문화센터와 같은 곳이었다. 본 교육소에서 행해지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교육 중 민화를 선택한 이유와 장기간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표 6>.

표 6. 민화교육 선택과 장기간 교육 참여의 이유

a. 접근의 용이성	
w_p	요즘 한국적인 것들이 대세고 (중략) 민화는 따라 그리면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점점 더 크고 어려운거 하고 싶고 (후략)
w_l	실력을 떠나서 초기에 예술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리는 재미가 빨리 붙는 것 같아 (중략) 민화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인 것 같아서 계속 해.
w_w	초보자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고, 색감이 예뻐서 (중략) 민화는 화려해서 좋은 거 같아요, 짱하고 찌하고 그런 것 (후략)
w_e	민화는 유화나, 서양화 같은 그림이랑 다르게 쉽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더 어렵고 크고 복잡한 그림을 하고 싶고, 완성하면은 성취감도 많이 들고 부듯해요.
w_b	우선은 너무 재밌고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니까 (중략) 수채화나 유화는 중간에 어려워지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민화 같은 경우는 (중략) 다른 것에 비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b. 과거 긍정적 경험	
w_h	전통 미술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짧은 (예술) 경험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문화센터나 동사무소도 찾아봤는데요, 배우는 것이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시간이지만은 얼마나 소중한데요,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w_j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경험이 너무 좋았고 계속 해보고 싶어서
w_m	(과거경험에)민화의 색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략) 기분이 너무 좋아요 (중략) 작은 것 부터 큰 그림을 그리면 몰랐던 민화 상징적 의미와 기법도 알게 되고, 집에 걸린 완성된 작품을 보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m_k	(과거 전시관람)(중략)색감이 한국적이고 화려해서요. (중략) 점점 더 어려운 걸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면담자들은 여러 ‘민화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① 초보자들이 그리기 쉽기 때문이라 답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양예술에 비해 본을 떠서 따라 그리기부터 시작하는 민화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② 이전에 민화와 비슷한 예술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장기간 민화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나뉜진 커리큘럼에 따른 점진적인 배움의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완성작품을 바라보는 본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표 7>은 예술교육을 받은 후 교육 참여자 본인이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하였고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게 하였다.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따라서 면담자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시 질의를 멈추고, 중간마다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면서 면담을 이어나갔다. 이로 인해 이 질문에 대한 면담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표 7. 교육 후 자신의 가정·사회생활의 변화와 생각

a. 삶의 원동력	
w_b	굉장히 힐링 되고, 집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요.
w_l	(중략) 활력이 생기더라고, 취미가 생기니까.
w_w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큰 변화 없지만 휴일에 갈 곳이 생겨서 좋아요. (2초 침묵) 음- 무언가 배우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중략) 원래 휴일은 그냥 TV 보고 누워있었죠.
w_h	사는 이유랄까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w_j	애들 키우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제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오면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웃음)

w_p	(수업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사람대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중략) 회사에서 활발해진 것 같고 (후략)
b.정서적 안정	
w_e	미술 전공했지만,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어서 좋고, 지식이 많이 쌓이는 거 같은 느낌 (중략) 명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구나. 이런 예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줘요.
w_m	성격이 온화해진 것 같아요. (중략) 편안하게 그림 그리면서 여기 사람들이랑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m_k	네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점이 변화됐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3초 침묵) 집중력이 생긴 것 같고 (3초 침묵) 차분해 진 것 같아요.

위와 같이 교육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내면적 변화가 생겼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변화에 대해 표현했다. 제일 많은 대답으로는 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틀에 박혀 돌아가는 바쁜 일상 중에서 시간을 내서 배움을 갖는 시간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느꼈다. 더불어 ②자신의 성격이 온화해졌다고 느끼거나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다음으로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 물어본 뒤 자신을 그림으로 묘사해 나타내도록 했다. 교육 참여자 모두 장기간 민화를 그리는 수업에 참여한 바, 그림으로 나타내어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민화 교육받기 전과 후의 자신을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전화면담을 한 이들에게는 수화기 너머로 자신에 대한 표현을 묘사하여 설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묘사를 위해 연필, 사인펜, 색연필과 같은 모두 동일한 그리기 도구를 제공했으며 채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시사항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지켜보았다.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 후 그림으로 민화교육을 받기 전의 나와 받은 후의 나를 묘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각각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그림에 대한 뜻이 같은 특성을 보이는 그룹끼리 짝을 지어 분류했다<그림 7><그림 8><그림 9>.



그림 7. w_j, w_m, w_b - 교육 후 내면의 풍부함과 여유로움을 표현

자신의 그림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참여자 w_j, w_m, w_b은 민화교육 후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졌다’고 했다. w_j는 민화교육 참여 전 자신이 인스턴트커피라면 교육 참여 후의 자신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원두커피라고 말하였다. w_m은 민화교육을 받기 전 자신은 일만하는 개미였다고 묘사했다. 2년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은 실질적으로는 너무 바쁘지만 내면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배짱이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w_b는 예술교육 전 자신은 암흑 속의 돌덩이라고 말했다. 일만하는 자신에 대해 부가적이 설명을 했을 때 자신에 대한 묘사를 ‘암흑’, ‘우울함’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로 설명했다. 그리고 교육 후의 자신에 대해 생기 있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화면담에서 참여자 w_l, w_w는 민화 교육 후 자신을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거나 자유로운 나비나 새에 비유하여 자신을 묘사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상승’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특별해졌다고 생각했다. 다음 대화 상자는 2인의 전화 면담에서의 자신의 민화 교육 전·후 묘사 내용이다.

w_l: 평범한 아줌마고 디자이너고,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자: 그림으로 민화 교육 받기 전이랑 후를 그린다면 어떤 것 같나요?) 음- 나를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그림 그리고 있는 나는 좀 더 컬러풀 할 것 같아. 생기 있고, 화려한 < 2020.12.3. 전화면담 >

w_w: 이렇게 민화를 그리는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나 새 같다고 생각해요. 나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나비나 새를 그릴 것 같아요. < 2020.12.3. 전화면담 >



그림 8. m_k, w_e, w_p - 교육 후 자신의 가치상승에 대해 표현

<그림 8>의 m_k와 w_e, w_p는 자신이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상승했다고 느꼈또한, m_k는 교육을 받기 전 자신은 일만 할 수 있는 낮은 계급의 게임캐릭터였으나, 교육받은 후 자신은 성능이 우월한 남들이 우리러보는 게임캐릭터로 승격했다고 말하였다. w_e는 교육을 받기 전 자신은 들판에 꽃 중에 하나였으나, 교육 후 자신은 크고 화려한 색상의 가치 있는 꽃이 되었다고 말했다. w_p 또한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수많은 나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으나, 교육을 받은 후 자신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즉, 스스로에 대한 가치상승은 심층 면담자 9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이 느낀 평가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참여자 w_h는 교육을 받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 누군가의 아내이며 엄마로의 역할만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 아내와 엄마로의 역할로만 생각을 한 것이다. 교육을 받은 후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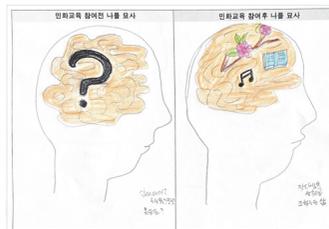


그림 9. w_h의 교육 후 자신의 삶에 이유에 대해 발견

종합적으로 자신에 대한 묘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했다.

① 교육을 받기 전 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절제된 색을 사용하였다. ② 교육을 받은 후 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다. ③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이 교육받기 전에는 작거나 단순화된 상징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 나에 대한 표현의 상징이 더 복잡한 형

태로 변화했으며 상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미술교육학자인 Efland(2006)는 그의 책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림은 억압된 무의식을 반영해 화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말하였다. 교육이론가이며 비평가인 Eisner(1982)은 ‘미술교육과정이 마음의 본질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상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는 교육 참여자들이 점진적으로 깊이 있는 면담을 하면서 자신을 묘사하는 그림그리기 방법을 통해 자신이 창의적이고 내면적으로 성장했다고 느꼈다고 본다. 또한 미술교육의 시각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자인 Langer(1980)은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인간의 감성들은 오직 미술로만 표현이 가능하며, 정서적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때 이들 교육 참여자 예술교육이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표 8>은 민화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느낀 것에 대한 질의다. 가족들과 주변인과 친구나 직장생활에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표 8. 민화 교육 후 가정·사회생활에서의 타인의 평가와 생각

a.가족이나 타인의 평가로 인한 자신의 가치상승	
m_k	(가족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세요. 부모님은 손재주가 원래 있었다고 하세요. (웃음)(중략) 친구들은 막 금손 이라고 칭찬해요.
w_l	아들이 생기 있어 졌다고, 남편은 표현을 잘 안하지만 좋아하고, 아들은 내 작품보고 감탄하지 (큰 목소리) 달리보지. 존경의 눈초리가 있고, 내가 뭘 하러 가고 바쁘니까 활력 있어 보여.
w_w	내 그림 예쁘다 하면 내가 100만원주고도 안판다고 (웃음) 인스타그램에 내가 저번에 내 그림 올렸는데 댓글에 친구들이 다들 금손 이라고 칭찬했어요.
w_h	아들은 너-무 좋아해요 (큰 목소리). 그림 보면서 (중략) 엄마 예쁘다. 라고 좋아해줘요. 신랑은 말로는 표현안하지만은 제가 꾸준히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을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저 마중 오기도 하구요.
w_j	남편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연구자: 딸들은 뭐라고 해요?) 그림 보여주면 울어요. 자기도 그리고 싶다고. 그림 물감 놔주고 같이해요.
w_m	처음에는 애기 안보고 나간다고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장기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중략) 저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감동스러워 해요. 정말 받아도 되냐고 되물어요.
w_e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주변에 친구들도 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달리 보는 느낌이고, 멋지다고 칭찬도 많이 치켜세워주고.
w_p	이런 걸 좋아해서 많이 해봤는데 (중략) 오래 한다고 놀라워하고, 완성한 작품 갖고 가면은 아버지가 액자 해야겠다고 좋아해요.
w_b	가족들이 좋아해요(웃음), 신랑이 저를 달리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엄청 해줘요.

참여자 모두는 공통적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장기간 배움을 받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들은 자신을 부모의 역할을 떠나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했으며 점점 더 크게 어려운 결과물을 소개할 때마다 노력의 가치에 대해 알아준다고 이야기했다. 이전 질문에서 교육 참여자 자신이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변화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타인의 평가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향상되었다고 느낀 것’이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추가로 자녀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예술교육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의 학습에 대한 행동과 그 결과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교육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보고 ‘자녀들이 비슷한 학습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의 놀이이며, 학습이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라고 평가했다(표 8).

표 9. 지속적인 교육 후 미래의 자신에 대한 생각

a. 자신의 가치상승과 내면적 성숙	
m_k	(5초간침묵) 파퓰한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몰두할 취미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술이 없다면) 후회할 것 같아요
w_b	제 인생에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고 (중략), 좀 더 빨리 했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연구자: 예술 활동을 계속 하지 못했다면?) (큰소리)(한숨) 너무 삶이 낙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할 것 같아요. (후략)
w_w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고나 할까. 미래에는 더 많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후략)
w_h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연구자: 미래에 예술 활동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략) 다시 뒤를 하면 행복할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w_j	저만의 프라이드가 생기겠죠? (중략) 성취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큰 원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연구자: 평생취미를 갖는 것이 삶의 원동력을 갖는 것 인가요?) 네, 그림은 제가 유일하게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w_m	되게 뿌듯하겠죠, 제가 취미로 시작했지만 무언가 이런 결과가 있을 거 같아요. (연구자: 이런 예술적인 활동을 전혀 안했다면 미래에 어떨까요?) 그동안 왜 안했을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w_e	내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 이라 생각해요. 내가 대견할 것 같고,(인생을) 잘살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중략) 없는 삶이라면 후회하고 가치 없는 삶은 산 건 아닌지 반성할 것 같아요.
w_p	제가 끈기가 없는 편이라 (중략), 제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가족들도 달리 볼 것 같아요. (중략) 못했다면 우울 할 것 같아요.
b. 긍정적 관계의 소통 도구	
w_l	민화 배우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략)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소통의 도구 같아. 계속한다면 가족들이랑 주변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게 되겠지. 내가 성장한 거니까 (후략) 이런 활동이 없다면, (내면이) 어두워질 것 같아

위 <표 9>는 마지막 질문으로 미래에 대한 면담내용이다. 자신의 미래에 삶에 예술이 없는 것과 예술이 있는 삶에 대해서 비교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민화가 아니더라도 예술교육이 나를 미래에 나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의하였다.

참여자 w_l은 ① 민화가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되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미래에도 그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머지 교육 참여자들은 모두 ②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자신과 삶의 가치 있게 해준다.' 생각했다. 더불어,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함과 성취감' 있을 것이고 '내면적으로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래에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나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참여자 w_e, w_b는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을 아닌지 반성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참여자 w_h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 했다. 나머지 참여자들도 예술교육이나 활동이 없는 미래에 자신은 '삶이 삭막해지거나 우울해질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평생교육통계(2021)에서 2020년 평생학습의 성과 중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가 가장 높은 성과로 응답 조사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분석 결과

종합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현대사회 예술교육의 역할로 부합되는 키워드는 ‘긍정적인 학습경험, 배움의 욕구, 내면적 성장, 자신의 가치 상승, 타인과의 소통의 도구’ 등 총 5가지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예술교육에 대한 동기와 참여는 모사(模寫)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화교육방법의 용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과거 민화교육과 유사한 회화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경험’이 더 깊은 예술교육으로의 참여와 학습 동기를 이끌어 냈다. 둘째, 장기간 예술교육의 참여의 이유는 단계별로 나뉜 커리큘럼에 도전하고자 하는 ‘배움의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완성작품을 바라보는 본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장기적인 학습으로 이끌었다. 셋째, 민화교육을 받은 후 교육 참여자들은 자신이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다. 바쁜 일상 중 시간을 내서 배움을 갖는 것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느꼈다. 더불어 자신의 성격이 온화해졌다고 느끼거나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했다. 넷째, 민화교육 후 가족과 주변인들이 인정과 긍정적인 말들로 인해 ‘자신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가족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와 존경의 시선들로 인해 삶의 원동력을 얻는다고 했다. 다섯째, 지속적인 예술교육 후 미래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예술교육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켜줄 것이라 기대했다. 가정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민화가 가족과 주변인들과의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될 것이라 했다. 이상과 같은 5가지의 긍정적인 키워드는 예술교육 후 변화된 본인에 대한 생각과 표현에 대한 그림 등의 묘사로도 확인했다. 민화 교육을 받기 전 자신을 단순하고 작은 형태와 절제된 색으로 표현했다면 교육 후 자신을 더 큰 형태와 의미부여 더 복잡해진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보였다.

더불어 참여 관찰로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한 결론은 ‘학습 공간에 대한 소속감, 의미를 발전시키려는 충동’ 등 두 가지 키워드로 도출했다. 첫째, 민화교육 참여자들은 이전 공공 기관이나 기업의 학습공간에서 느끼지 못했던 ‘학습공간에 대해 소속감’을 통해 예술 활동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고 하였다. 교육소에 조성된 여러 책상의 크기, 배치, 배경음악, 식물 등의 물리적 환경이 몰입을 도와준다고 했다. 더불어 교실에 걸린 지도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학습동기 유발을 경험했다. 이는 2장의 문헌연구에서 언급된 성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에서 학습 받는 공간, 즉 환경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의 근거(국지하 등, 2008; 이석진, 이승진, 2015; 이승현, 함승환, 2021)를 본 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둘째, 민화교육소의 실기학습법은 같은 원형을 따라서 그린 후, 제시된 색채로 채색을 하도록 그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아이디어·생각에 따라 상상력과 창의성이 가되어 형태가 합쳐지거나 생략되고 더해지는 과정이 일어났다. 이런 창의성은 ‘의미를 발전시키려는 충동’에서 시작됐다. 이런 행위는 교육 참여자 개인적 충동과 관심이 자신의 작품을 만족감 있게 완성시키고자 하는데 훌륭한 동기가 되어 실행한 인지적 행위의 결과(Anderson & Milbrandt, 2007)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학습자 개인이 느낀 감정과 상상력은 개인적 의미를 창조하고 문화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Efland, 2006).

IV. 결론 및 교육적 시사점

질적 연구는 자료 분석을 통해 반성적이고 예술적인 특징을 가진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대상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장기간 교육에 참여한 9명의 전통 민화교육 참여자들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고찰과 연구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병행한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다. 참여 관찰을 통한 현장노트, 사진, 그림,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현상학적인 근거로 들여다봤다.

연구가 이루어진 전통 민화교육소에서 행해지는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앞장의 연구내용처럼 참여자들은 모방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내면적 성숙을 이루어 냈다. 나아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예술교육은 문화를 단순히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Bruner, 1960).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곳곳에 위치해 늘어가고 있는 작은 예술교육소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했다. 그동안의 평생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은 대학이나 공공기관, 백화점문화센터, 기업부설의 사회공헌 학습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의 면에서 우수한 측면이 있으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맞춤형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이석진, 이승진, 2015). 즉, 지역사회의 정책목표 또는 현행 교육과정의 큰 틀에 맞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과 목표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손길이 닿을 수 없고 개인의 흥미도와 환경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문화향유 충족과 배움의 욕구는 있지만 학습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예술작가의 사설 교육소는 좀 더 개개인에 맞춘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대형기관에 비해 좀 더 예술교육 참여자의 욕구에 맞춰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교육을 행하는 이들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작가 예술교육소를 활용하여 예술교육의 수월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적인 방법들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개념이 2008년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고 2016년 법 제정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제정이유의 목적으로 두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속에서 지역의 예술작가들의 교육소에서는 단순 일회성의 문화 전수의 기회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성을 깨달아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참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예술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나아가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예술교육이 가지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숙자(2002). 민화의 이해·표현·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14, 183-209.
- 고연희(2017). 민화 연구의 역사와 전망. **한국민화학회**, 8, 6-29.
- 교육부(2008). **평생교육법**. 법률 제17954호.
- 교육부(2016). **평생교육법**. 법률 제17954호.
- 교육부(2021).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SM 2020-1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지하, 윤용한, 박봉주, 김원태(2008). 학교 숲 조성이 초등학교의 학교조경 만족도 및 환경교육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1(3), 27-34.
- 김상미(2019). 평생교육에 관한 성인 학습자의 유형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8, 43-69.
- 김영수(2015). 한국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적 고찰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8(1), 21-30.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권(2012). **민화, 관화/민화라고 부릅시다**. 서울: 예서원.
- 박소연, 홍성만, 임채홍(201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6(4), 111-132.
- 박태영, 박소영, 반정호, 성준모, 은선경, 이재경, 이화영, 조성희(2009). **질적 자료 분석론**. 서울: 학지사.
- 변애경,윤창국(2017).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본 여성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의미 탐색. **평생학습사회**, 13(3), 1-32.
- 송주연(2018년10월27일). "중년 여성들은 왜 배움에 열광할까". **오마이뉴스**, 특별기획면.
- 양은아(2019). 지역사회 평생교육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공급 및 참여 패턴 연구: 10년간 (2008-2017) <평생교육통계>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7(1), 107-137.
- 이경진, 최나영, 강주희(2019).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예술 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7(3), 26-46.
- 이미정(2014). 공공미술을 통한 미술교육의 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8(4), 207-233.
- 이수경, 박부숙(2012). 민화감상과 연계한 유아예술통합프로그램의 효과. **조형교육**, 52, 213-236.
- 이승현, 함승환(2021).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의 강의만족도 재분석 : 온라인 학습참여의 장소의존성 역설. **열린교육연구**, 29(1), 71-91.
- 이은경, 현은령(2021). 온라인 예술교육 회화클래스 플랫폼 현황 및 참여자의 교육 참여후기 분석. **예술교육연구**, 19(1), 17-33.
- 윤열수(2000). **민화 I**. 서울: 예경.
-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장옥주, 김현숙(2010). 사설학원 무용지도자의 무용예술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19(3), 897-909.
- 정소연, 성소영(2012). 민화감상과 연계활동이 유아의 미적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1(1), 225-245.
- 황명화(2020). 성인전기 여성 학습자의 발달과업 인식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1095-1122.
- Anderson, T. & Melodt, K. M. (2005). **삶을 위한 미술교육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김정희, 최정임, 신승렬, 김선아, 손지현 역(2007), 서울: 예경.
- Arthur D. Efland. (2002). **인지중심 미술교육론 탐구(Art and Cognition)**. 강현석 김선아 김혜숙 안금희

- 이은적 이자현 황연주 옮김(2006), 파주: 교육과학사.
- Belenkey M. F & Clinchy B.M & Goldberger N.R & Tartule J.M. (1988). Women's Ways of Knowing: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18(1), 113-121.
- Bruner, J.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therine Marshall & Gretchen B. Rossman.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 Deznin, N, K. & Linclon, Y. S. (1994). Introduction: Entering the field of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Eisner, W. E. (1982). Contribution of painting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 164(3), 227-237.
- Kotler N & Kotler P. (1998). *Museum strategy and marketing : Designing missions, building audiences, generating and resourc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Langer, S. (1980). *Philosophy in a new key: A study in the symbolism of reason, rite, and ar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her, R. (1993). *Maring stories, making selves: Feminist reflection on the holocaust*.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Miles,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Beverly Hills, CA: Sage.
- Morana, C. & Oudin, E. (2009). 예술철학 (*L'ART:de Platon a Deleuze*). 한의정 역(2013), 서울: 미술문화.
- Robinson, W. S. (1951). The Logical Structure of Analytic Induct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6), 812-818.
- Urquhart, C. (2010). *Ground Theory for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Guide*. Sage.
- Znaniecki, F. (1934). *The Method of Sociology*. NY: Rinehart & Company.

ABSTRACT

A Role of Contemporary Social Arts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Focusing on Education Participants' Art Experience and Life Change Aspects in a Traditional Korean Folk Painting Artist

Lee, EunKyoung · Hyun, Eunryung(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and educational implication that the art will need to be qualified today from the lifelong education viewpoint, through a medium dubbed 'folk painting' as the Korean traditional art. The Analytic Induction method was used that elicits a theory with continuing to present modification and hypothesis based on interview materials, field diaries, photos and pictures that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d the participatory observation in subjects who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folk painting education from 6 months to two and a half years. As a result, the key words of corresponding to a role of contemporary social arts education from the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could be arranged as the ones such as 'positive learning experience, a desire to learn, internal growth, own value rise, a communication tool with others, a sense of belonging to a learning space, and the urge to develop meaning.' Also, the implications on a role of small private art education centers, which are growing in community, could be found. A private art education center forms the freer education environment in line with each individual, thereby being able to carry out education more suitably for the needs of art education participa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research so that the constant art education can be made without thinking of it as a simple one-off opportunity for cultural transfer, and to offer art education environment. Resultingly,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playing a good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at the art education has, through providing an opportunity of enjoying culture throughout the life cycle to modern people and through lead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through self-realization.

Key words : Arts Education, Traditional Korean Folk Painting, Art Experience, Lifelong Education

접수일 : 2021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4일